

포스코 물류통합법인 연내 출범... 해운업은 진출 안해

posco

그룹내 물류역량 통합, 시너지 제고 AI·로봇기술 기반 플랫폼 구축 추진 해운업은 물론 운송업 진출계획 없어



포스코 대치동 사옥

포스코가 물류통합 운영법인 '포스코GSP(가칭·글로벌스마트플랫폼)'을 연내 출범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룹 내 물류역량을 통합해 물류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물류 통합법인은 포스코 및 그룹사 운송물량의 통합계약과 운영관리를 담당하고, 물류파트너사들의 스마트·친환경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 물류 효율과 시너지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철강원료 구매, 국내외 제품 판매와 관련된 각종 운송계약이 포스코 내부의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고 포스코인터내셔널, SNNC, 포스코강관 등 계열사

별로 물류 기능이 흩어져 있다. 이를 하나의 회사로 통합해 중복과 낭비를 제거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계열사를 포함한 지난해 물동량은 약 1억6000만톤, 물류비는 약 3조원 규모임에도 물류업무가 회사별, 기능별로 분산되어 판매 및 조달의 지원 기능으로만 운영되는 등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중후장대한 철강업 특성상 물동량이 많아 유럽, 일본, 중국의 글로벌 철강사

들은 물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이미 물류 전문계열사를 운영하고 있다.

물류통합 법인은 원료 및 제품의 수송계획 수립, 운송 계약 등의 물류서비스를 통합 운영해 효율성을 높이고, 인공지능과 로봇기술 기반의 물류 플랫폼으로 성장할 계획이다.

또 현재 중소협력사에 이전하고 있는 포스코 스마트팩토리 기술을 물류파트너사에게도 접목해 스마트화를 함께 추진한다. 일례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한 'AI배선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선박이 항구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최소화해 손실과 비용을 줄이면 그 성과를 물류파트너사와 공유하는 등 상상과 협력에 기반해 생태계를 강건화한다.

물류통합 법인은 엄격해지는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해 물류파트너사와 함께 친환경 물류 인프라를 구축해 나간다. 국내 해운·조선사와 협업해 선박

탈황설비 장착 및 LNG추진선 도입 지원, 디젤 엔진 등으로 작동하는 항만설비의 전기동력으로의 전환 지원, 친환경 운송차량 운영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동반성장을 위해 화물차주 대상으로 운송 직거래 계약을 도입한다. 화물차주가 직접 입찰에 참여하고, 화물운송, 운송료 정산까지 할 수 있는 모바일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물류통합법인 설립에 앞서 포스코는 포항과 광양제철소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육상 운송에 직접 참여할 의향이 있는 개인 화물차주 모집을 시작했다. 시범 사업으로 시행되는 이번 화물차주 직거래 계약·운송은 6월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개선사항 등을 반영해 물류법인 설립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포스코 물류통합 법인이 설립되면 해운업, 운송업까지 진출해 사업영역을 침범하고 물류

생태계를 황폐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는 지난달 28일 청와대와 국회,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에 포스코의 물류 자회사 설립을 반대하는 '50만 해안가축 청원서'를 제출했다. 화물연대는 5월 중순에도 대규모 시위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해운법에 따라 대량화주가 해상운송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고 있으며, 포스코는 해운업은 물론 운송업에 진출할 계획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통합법인 설립 이후 물류 효율성 제고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그룹 내 시너지 효과를 내면, 그 성과의 공유는 물론 장기 전문선 계약을 비롯한 기존 물류 파트너사들과의 계약 및 거래 구조도 변동없이 유지하는 등 상생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SK하이닉스-카이스트, 인공지능 전략적 협업 MOU

반도체 제조과정 데이터 실시간 분석

제조 데이터 AI 모델로 분석 품질 예측·성능향상 지원

SK하이닉스가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과 손잡고 반도체 난제 해결에 나선다.

SK하이닉스는 12일 화상회의를 통해 카이스트와 '인공지능 전략적 협업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SK하이닉스 송창록 DT 담당과 카이스트 박현욱 부총장, 문재균 전기 및 전자공학부 학부장 등이 참석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협약을 통해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카이스트에 실시



SK하이닉스와 카이스트 관계자들이 화상회의로 진행된 '인공지능 전략적 협업 양해각서(MOU)' 체결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하이닉스

간으로 제공하게 된다.

지난 3월 이전 본사에 구축한 '인공지능 협력센터 클라우드 시스템'을 활용하며, 카이스트 대전캠퍼스와 성남 차세대 ICT 연구센터에 별도 보안공간

도 마련했다.

카이스트는 SK하이닉스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인공지능 모델로 분석해 반도체 품질 예측 및 향상을 돕게 된다.

/김재용 기자 juk@

SKB, B tv 케이블에 '잼 키즈' 론칭

학습 콘텐츠 4000여편 제공

SK브로드밴드는 'B tv 케이블'에 B tv 핵심 키즈 서비스인 'ZEM(잼) 키즈'를 론칭하고 본격적인 케이블TV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달 30일 티브로드와 합병을 완료한 SK브로드밴드는 기존 티브로드 케이블TV의 이름을 'B tv 케이블'로 확정했다.

'B tv 잼 키즈'는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제공하는 키즈 전용 서비스다.

서비스 메뉴는 ▲읽어주는 동화 ▲누리교실 ▲초등학습 ▲영어스쿨 ▲부모교실 등으로 잼 키즈의 학습 콘텐츠 4000여편을 제공한다. 아이들이 연령별·기호별 원하는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만 3세까지의 영아를 대상으로 한



모델들이 '잼 키즈' 론칭 소식을 알리고 있다. /SK브로드밴드

'읽어주는 동화'는 약 350편의 동화를 전문성우가 읽어주는 서비스다. 도서출판 아람의 '뫼난이 공룡 알로', 리틀베 이비키쳐북의 '우리가족' 등 베스트셀러를 엄선했다.

만4세부터 7세까지 유아를 대상으로 한 '누리교실'은 유아 멀티미디어 교수·학습 업체인 PDM의 '누리놀이' 콘텐츠를 업계 단독으로 제공한다.

/김나인 기자 silkni@

LGU+ '유미의 세포들' AR 콘텐츠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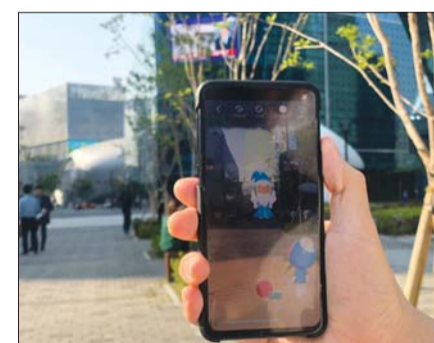
(네이버 웹툰)

웹툰 인기 캐릭터 3D로 등장

LG유플러스는 텍스터스튜디오와 손잡고 네이버웹툰의 인기 작품 '유미의 세포들'을 증강현실(AR) 콘텐츠로 서비스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부터 U+AR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제공되는 '유미의 세포들' AR는 총 5종의 스틱 형식이다. '출출이세포', '응큼세포', '패션세포' 등 웹툰의 대표적인 인기 세포 캐릭터들이 일상 공간에 3D로 등장하고, 원작 특유의 스토리도 AR 플랫폼에 맞춰 플레이 된다.

해당 콘텐츠는 LG유플러스 5G 이용 고객이라면 누구나 'U+AR' 앱을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U+AR는 실시간 기반의 고화질 입체 스타, 캐릭터 콘텐츠를 360도 각도로 감상하고 콘텐츠와 함께 촬영한 사진, 영상 등을 공유할 수



'유미의 세포들' AR 콘텐츠 화면. /LG유플러스

있는 서비스다.

지난 2015년부터 네이버 웹툰에서 꾸준히 연재중인 '유미의 세포들'은 주인공인 '유미'의 다양한 감정, 체내 활동 등을 세포로 의인화해 유미의 마음을 보여준다는 설정과 극 중 30대 여성 유미의 직장생활, 연애사 등 현실적인 스토리로 두터운 팬 층을 확보하고 있다.

/김나인 기자

현대차, 인천공항에 수소전기버스 충전소 유치 협약

저탄소·친환경 공항 구현 앞장

현대자동차가 인천국제공항공사, 에어리퀴드코리아, 수소에너지네트워크와 함께 수소경제 활성화 및 인천국제공항의 저탄소·친환경 공항 구현에 힘을 모은다.

현대차는 지난 11일 인천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구분 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기욤 코테 에어리퀴드코리아 대표이사 사장, 유종수 수소에너지네트워크 대표, 한성권 현대차 상용사업담당 사장 등 사업 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인천국제공항 수소전기버스 충전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환경부가 주관하는 '수소



기욤 코테 에어리퀴드코리아 대표이사 사장(왼쪽부터), 한성권 현대차 상용사업담당 사장, 구분 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유종수 수소에너지네트워크 대표가 업무협약 체결식 후 기념촬영을 진행하고 있다.

연료전지차 충전소 설치 및 민간자본보조사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988년부터 수소전기차 개발을 시작해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차 양산에 성공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차 기술을 보유

하고 있는 현대차와 세계 공항서비스평가(ASQ) 12년 연속 1위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 운영 서비스를 갖춘 인천국제공항 간 시너지가 클 것으로 회사는 기대했다.

/양성운 기자